

평양국제포럼

이훈재
8-12

일본의 역사교육과 전쟁책임

이바라기대학 강사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성원

가스야 마사카즈

93, 11, 7~8

일본의 역사교육과 전쟁책임

이바라기 대학 강사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성원

가스야 마사가즈

(1)

일본의 전쟁책임을 생각할 때 일본이 아세아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전개되어온 역사를 재검토하고 과거의 침략 전쟁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보상)하며 교육이라는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책임문제란 이 4가지 과업을 수행하는것이며 이 4가지 과업을 완전히 수행하여야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토론에서는 이 가운데서 특히 교육에 대하여 고찰하겠는데 교육이야말로 정부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대하여 인정케하고 앞으로 다시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2)

과거의 침략전쟁의 실패를 밝히고 정부가 그것을 인

정할것을 추구하며 어떻게 교육하겠는가고 생각할 때 우선 침략전쟁의 실태를 밝히는 역사연구가 있으며 그 성과를 반영한 역사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에는 교과서검정제도라는 것이 있어 역사연구의 성과가 반드시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검정제도를 반대하는 교과서재판과 교과서집필자들의 노력이 있으며 특히

1982년 여름의 교과서문제에 대한 아세아나라들의 비판이 일본후 일본정부의 정치적판단으로 교과서내용이 시정된 점이 약간 있기는 하나 아직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사교과서가 부득이하게 가지고 있는 불충분성으로부터 앞으로 검정제도의 폐지와 역사연구, 역사교육의 진전이 필요하다는것은 말할 여지도 없으나 역사연구, 역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특히 일본과 조선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생각할 때 일본에서의 조선사 연구에 기초하여 조선사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워 전쟁책임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일본과 조선과의 장래를 내다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조선사연구회가 중심이 되어
일본과 조선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의 형성을
위하여 《조선의 역사》(산세이도 1973년) 《조선
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겠는가》(류게이서점, 1976
년)를, 그리고 1982년 여름에 있는 교과서문제를
계기로 하며 《입문·조선의 역사》(산세이도 1986년)
를 출판해나가고 있으며 일본력사연구자들의 역사연구,
력사교육에서 많은 성과가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
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하는 이 토론이 바로 그 성과입니
다.

동아 세아 나라 력사교육관계자들이 국제적교류를 통하여
호상 력사교과서를 검토하거나 《자기 나라 력사》와
《세계사》와의 긴밀한 관계속에서 호상 장래를 내다본
력사교육의 방도가 연구되고있는바 이것은 전쟁책임문제를
생각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적교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력사교과
서를 검토해봅시다.

1993년도에 일본에서 7개출판사에서 18종의
고등학교 일본력사교과서가 출판되었는데 그것을 다 소개
할수 없어 유감스럽지만 여기서는 서술내용이 비교적 상
세한 《상해일본사 개정판》(산세이도 1993년 3월
30일 발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는
1992년 3월 3일 개정검정을 받은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와 관련이 있는 식민지조선에 대한 서술이 있는것
은 다음의 5개소입니다.

- ① 한국합병전후의 조선 (252-3페이지) -자료 ①
- ② 3.1운동 (263페이지) -자료 ②
- ③ 간토대지진과 조선인학살 (267페이지) -자료 ③
- ④ 조선의 병참기지 (295페이지) -자료④
- ⑤ 징용, 종군위안부 (305-6페이지) -자료⑤

이 가운데서 가장 관계있는 자료 ⑤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대동아공영권의 실상-일본은 전쟁목적으로 아세아를
백인의 지배로부터 해방한다는 구호를 들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인이 백인을 대신하여 가혹한 강점 지배를 실시하였다.

조선에서는 1940 (소와 15)년에 국민정신 총동원조선련맹이 국민총력조선련맹으로 개편되어 조선에 대한 총동원체제가 강화되었다. 1944 (소와 19)년에는 징병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약 20만의 여성들이 정신대에 징집되었으며 많은 여성들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다.

... 그리고 조선, 대만에서는 버재배와 공출이 강요되었다.

... 일본이 패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하자 만주, 조선, 동남아세아에서 항일독립운동이 강화되었다. »

(3만5 - 6 페이지)

이 교과서의 서술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이전에 비하면 이라도 상당히 전진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출판사의 9종의 1994년도용 고등학교 일본력사교과서에는 위안부징용이 수록된다고 하며 1993년 8월에 호소카와 정권이 일본의 침략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일정한 개선을 기대할수 있는조건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로서도 지금까지

이상으로 교과서재판, 역사연구, 역사교육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① 국제관계의 변화와 한국합병일로전쟁은 국제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인도에 지배의 인정화를 노리는 영국이 급속히 자본주의를 발전시켜온 독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러시아, 프랑스에 접근하였으며 또한 일본이 만주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항하게 되어 러일전쟁이전과는 다른 사태가 조성되었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지배확립을 1차적인 과업으로 외교를 벌였으며 1905 (병치 38)년 연일동맹을 개정하며 가쓰라-라흐포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일본의 우위를 인정시켰다.

일한 협정을 개정하며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 보호국으로 만들었으며 이등박문을 초대통감으로 하는 한국통감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07 (명치 40)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서 한국황제가 일본의 비법을 호소 (헤그밀사사건)하자 일본정부는 한국황제의 퇴위와 군대의 해산을 강행하였다.

그때문에 1909 (명치 12) 년 이등박문을 한국청
년 안중근에 의하여 암살당하였으며 해산당한 군인들은
농민들과 함께 반일의병투쟁에 일떠섰다.

일본 정부는 이것을 무력으로 탄압하였으며 드디어
1910 (명치 43) 년 한국을 병합하여 식민지로 만들
었고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다.

총독부는 일차 토지조사법을 개시하여 토지를 략탈하
는 등 군대와 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자료 ②

이러한 렬강의 움직임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한국병합
이래 조선총독부에 의한 극도로 강압적인 식민지통치하에
서 독립기운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로씨야적병과 쌍소
동에 의한 데라우찌내각의 붕괴, 월슨의 민족자결원칙의
제창 등을 계기로 조선의 독립을 요구하는 기운이 높아
졌다. 종교지도자들은 모임을 가지고 1919 (대정 8)
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호응한 수십만
의 민중이 《독립만세》를 웨치면서 경성 (저들의 서울)
에서 시위행동을 벌이자 이 운동은 삼시에 온 조선땅에
번져졌다. (3.1 운동)

자료 ③

제 2 차 야마모토 내각 조각중인 1923 (대정 12) 년 9 월 1 일 갑자기 대지진이 간토지방을 휘몰아쳤다.

이 간토대지진은 막대한 사망자, 리메민을 산생시켰으며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류언에 따라 조선인이 대량학살당하였으며 오스기 사카여와 이또노에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조합간부들이 수많이 살해당하였다.

자료 ④

만몽개척과 조선의 병참기지화

만주에는 농업이민으로써 만몽개척단을 들여보냈는데 전쟁이 확대되자 청소년들까지도 동원되게 되었으며 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청소년들로 만몽개척소년의용군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군대식 훈련을 받은다음 만몽에 파견되어 개척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지에서는 반만항일군과 땅을 빼앗긴 주민들로부터 습격을 받는 등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조선에서는 대륙을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가 강력히

추진되었다. 그를 위하여 북부의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면서 《내선일체》의 구호하에 전쟁동원을 위한 황국식민화정책이 실천에 옮겨졌다.

구체적으로는 신사참배가 강요되었으며 1938(소화 13)년에는 자원병제가 공포되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일본어사용이 강요되었으며 1939(소화 14)년 12월부터는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하는 《참씨개명》이 강요되게 되었다.

만주와 대만에서는 전쟁을 위한 동원체제가 꾸러져나갔다.

자료 ⑤ 대동아공영권의 실상

일본은 전쟁목적으로 아세아를 백인 지배로부터 해방한다는 구호를 들었으나 실제로는 일본인이 백인을 대신하여 가혹한 강점 지배를 실시하였다.

조선에서는 1940(소화 15)년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련맹이 국민총력 조선련맹으로 개편되어 조선인에 대한 총동원체제가 강화되었다.

1944(소화 19)년에는 징병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약 20만의 여성들이 정신대에 징집되었으며 많은 여성들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다.

대만에서는 1941(소화 16)년 황국신민 봉공회가 결성되었으며 1942-43년에는 지원병제 1945(소화 20)년 4월부터 징병제가 실시되었다.

황국신민화정책도 로골화되어갔다. 그리하여 조선, 대만에서는 벼재배와 공출이 강요되었다.

일본이 패하면서 퇴각하기 시작하자 만주, 조선, 동남아세아에서 항일독립운동이 강화되었다.